



▲ 1965년 5월 15일에 창간된 전주대신문이 55년만에 900호를 맞이했다 (사진 : 신문방송국 유한나).

##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의 변화

작년 1학기 신·편입생의 중도탈락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신·편입생이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이지만, 이번 학기에는 작년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강의를 이뤄지면서 멘토링도 비대면으로 운영돼, 멘토링의 취지에 맞게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현재 멘토링에 참가하고 있는 한 멘티는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 채팅으로 진행함에 따라 대화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표했다.

이에 대해 멘토링 담당 선생님은 “멘토들이 기대한 것과는 달리 멘티들을 위한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게 됐고, 멘티들도 갑자기 학교를 나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배들과의 sns상의 만남이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멘토링 학생들을 위해 새로운 방안들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반면,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시각디자인학과 임유진 멘토는 “멘티들이 거리낌 없이 궁금한 점을 물어봐서 좋았다. 아무래도 선배이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면 선뜻 못 물어봤을 텐데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편하게 소통했던 것 같다”라고 밝혔다.

또한 문헌정보학과 박지성 멘토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는데, 멘토링을 통해 멘티들과 소통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잘 따라주는 멘티들 덕분에 보람을 느꼈다.”라고 밝혔다.

한편, 6월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멘토·멘티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전주대학교 신입생과 재학생, 교직원분들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

유성훈 기자(ysh3277@jj.ac.kr)

## 2020-1학기 학생생활관 단기 입사 안내

전주대 학생생활관에서 기말고사 기간 동안 단기 입사할 학생들을 모집한다.

이전에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1학기 전체가 온라인 강의로 진행돼 학생생활관 입사가 전면 취소되었으나, 기말고사가 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장거리 학생들을 위해 학생생활관 단기 입사를 진행한다.

입사가 진행될 생활관은 스타타워 2인실로, 생활관 이용 기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6월 27일부터 7일간을 이용하게 될 경우

84,000원, 6월 20일부터 14일간을 이용하면 168,000원이며, 6월 13일부터 21일간 이용 시에는 252,000원이다.

선발은 선착순으로 이뤄지며,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전주대학교 인스타(inSTA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전주대 인스타 → 대학 생활관 → 학생 생활관 → 입/퇴사 관리 → 입사 신청). 신청 기간은 추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호실(2인 1실)은 임의로 배정되며, 시설 손

고 발생 시 추후 금액을 청구하고 다음 학기 입사에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거주기간 전 입사 취소 시 전액 환불 가능하지만, 중도 퇴사할 시 환불받을 수 없다. 퇴사 처리는 7월 3일(금)에 일괄적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스타타워 운영사무실(063-239-5500~02)과 스타홈 운영사무실(063-239-5520~22)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하 기자(minha37@jj.ac.kr)

## 코로나19 집단발생지역 방문 이력 자진 신고

전주대에서 학교의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집단발생지역 방문 이력”을 조사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자진 신고할 수 있다.

자진 신고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자, 2020년 2월 15일 이후 대구와 경북 지역을 방문한 자, 2020년 4월 25일과 5월 6일 사이 이태원과 서울 클럽 등 유흥업소를 방문한 자이다.

이에 대한 문의(063-220-\*\*\*\*)는 학생은 2819, 대학원생은 2137, 국제학생은 3199, 교원 및 조교는 2131, 직원은 2425로 하면 된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시간이 생명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전주대 전 구성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김지은 기자(jieun@jj.ac.kr)

# 장기화 진행 중인 코로나로 달라진 우리의 삶

## 전주대학교 한 학기 전체 온라인 강의 시작, 실험실습 & 실기 전공과목 제한적 대면 강의 허용



지난 5월 18일 등교를 최종 발표했으나, 이태원 클럽 신규 확진자 집단 발발로 인해 2020학년도 1학기 강좌 전체 온라인 진행으로 확정됐다. 현재는 실험·실습·실기와 같이 온라인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전공 교과목만 제한적으로 대면 수업을 허용하고 있다.

통제를 위해 각 건물에 체온 측정소가 설치됐다. 지정된 위치에 교직원 또는 근로 장학생이 오전 9시부터 건물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고 열화상 카메라와 비접촉 발열 검사기를 이용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 조교, 학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1m 이상 거리를 뒀다. 수업 참여 인원은 10명 이하로 제한되며, 출입 관리 대장 작성을 통해 학번과 이름, 발열 여부와 최근 방문지역 등을 조사해 동선 파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대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전주대 시각디자인 학과의 전공 수업을 취재해봤다. 먼저 전주대학교 시각디자인 학과 민명선 교수는 “개강이 늦어짐에 따라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수업 준비를 했으나, 예체능 과목의 경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학생과 교수자의 의사소통이 꼭 필요

하다. 수업 특성상 온라인 강의로는 한계가 있는 실기 수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제한적 대면 수업을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강의 시간 공간이 큰 강의실을 선택해 한 칸씩 띄어 앉기와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며 1:1 대면 수업 방식을 택했다고 전했다.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면 강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대면 강의 진행에 대해 우려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민명선 교수는 “우려하는 부분들을 참고해 몇몇 학생들은 친구를 통해 과제를 대신 제출하도록 하거나 메신저, 통화를 통해 소통하는 등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자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함께 안전 수칙 준수하기를 당부했다. 이어 “학생들을 직접 만나게 될 기회가 없었지만, 제한적 대면 수업으로 촉박한 강의 시간 내 프로젝트 점검 및 토의를 모두 해야 하는 방식이라 어려울 수 있는 수업 진행에도 대면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주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교육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현황 파악 및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감염병 대응 대책을 수립 및 진행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앱 ‘스마트 JJ’를 이용해 동선을 체크하고 감염병 예방과 방역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진서연 기자 (wlstjdus1@jj.ac.kr)

# “무기력함을 느낀다면”... 무료 정신 건강 상담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장기화와 생활속 거리두기로 인해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학교 재학생이라면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2층 221호에 위치한 ‘카운슬링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는 비대면으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전주대학교 카운슬링센터에서는 코로나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카운슬링센터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SNS) 공지사항을 통해 비대면 심리상담 지원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재학생에게 방역지침을 준수한 대면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단상담 요구조사도 하고 있다.

▲비대면 심리상담(전화상담, 화상상담, 카카오톡 채팅 상담) ▲온라인 심리검사 ▲온라인 마음건강지킴이 캠페인(“그대여 기대요, 그대여 기대해요.”) ▲좋은 친구 또래상담 1:1 비대면 멘토링 등

전주대학교 카운슬링센터 권호인 센터장은 “등교일 연기와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 활동 위축 및 교우관계 단절이 장기화됨으로써 심리

적·물리적 소외감이 증가한 학생들에게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소속감과 연결감을 증진하고,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도내 국가 소속기관에서도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검색해 직접 전화하면 상담을 안내받을 수 있다. 비대면이며, 상담센터는 전주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국 단위로 분포되어 있어 타 지역 학생이라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내년부터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의 하나로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를 기존 20·30·40·50·60·70세와 같이 10년 주기에서 다음 검사 연령이 도래하기 전 본인이 신청하면 22·24·26·28세 중 1회 검사가 가능하도록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상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학교 카운슬링센터(063-220-2077) 또는 전주시건강복지센터(063-273-6996)로 연락하면 된다.

진서하 기자(201915015@jj.ac.kr)

# 학생회관 출입 통제

지난 4월, 교육부에서 과방 및 동아리방과 같은 학생휴게시설 통제에 대해 지침이 내려왔다.

1학기가 비대면 강의로 확정되면서, 학생지원실과 중앙동아리연합회는 학생회관에 위치한 학생휴게시설 이용에 대해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정돼 일부 시설이 중앙 통제로 출입이 제한되었다.

학생회관을 출입할 땐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

해야 하며, 외부인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문진표를 작성한 뒤 출입이 가능하다.

통제 기간 중 동아리방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학생지원실의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동아리연합회 연합회장 김종훈은 “동아리방을 활용 목적이 아닌 급한 경우에만 출입이 허가된다.”라고 말했다.

이수용 기자(yong5135@jj.ac.kr)

# ‘여기는 재난 그 자체예요’ 대학상권의 비명

## 후문 점포 14곳 중 10곳이 매출 60% 이상 감소 대학상권의 특수성과 재난 상황이 맞물려 피해 직격탄 정부·지자체 지원도 실효성 딱히 없어, 학교나 학생 도움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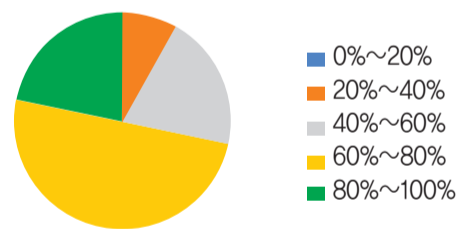
▲ 전주대 후문에 운영을 정리하고 내놓은 점포들.

“힘든 정도가 아니지. 이리다가 밥 굶게 생겼는데, 죽을 맛이야.” 하이트광장 포차를 운영하는 사장은 2002년부터 우리 대학 후문 상권에 자리를 잡고 20년 가까이 가게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대학의 1학기 수업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돼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게 되자, 가게 정리를 생각한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하이트광장 사장은 개강총회, MT, 체육대회, 봄 축제, JJ 리그 등으로 한 해 매출이 가장 높게 나오는 3월, 4월 5월에 학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번 봄 매출이 전년 대비 98% 이상 준 것으로 체감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4월 4,503명의 유동인구를 보였던 후문 상권이 올해 4월에는 3,501명에 그쳤다. 그레도 십몇 년을 운영한 점이 있어 손해를 감

수하고 매일 가게로 나와 학생들을 상대로 영업할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만약 2학기에 대면 수업이 시행된다면 정말 가게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전주대학교가 우리(후문 상권)를 생각해주시지 않는다면 이 상권은 완전히 망해버릴 것 같으며 관심을 둘 것을 촉구했다.

단체 손님이 오지 않는 술집, 포차만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대학상권 전체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벌써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거나 자리를 내놓은 점포만 여러 개다. 우리 대학 후문 상권에 있는 점포 중 조사에 응답한 14곳을 취재한 결과 모든 점포의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음을 체감했다고 답했고, 한 곳을 제외한 13곳이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했음을 체감했다고 답했다. 그중에서 60%에서 80% 정도 매출이 감소했음을

# 전주대 상권 상인들이 체감하는 매출 하락



(조사한 16곳 중 응답한 14곳 응답 반영)

체감한 점포가 7곳이며 8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고 체감한 점포는 3곳이었다.

우리 대학 후문에서 중화요리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불타는 쟁반 짜장 사장 이희용 씨는 1학기 내에 대면 수업을 시행할 줄 알고 개강 이벤트나 플랜카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배달 서비스도 최근 시행했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학교 뒤편에 자리를 잡고 있는 후문 상권은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일반인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고 학생들이 매출 95%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면수업을 하지 않아 학생들이 상권을 이용하지 않으니, 현재 이 상권은 재난지역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재난지역에서 학생들을 받지 못한 채 전기요금, 가스요금, 임대료, 인건비 등이 고스란히 나가고 있는 지금 전년 대비 80%이상 매출이 감소한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이희용 사장은 가게 운영 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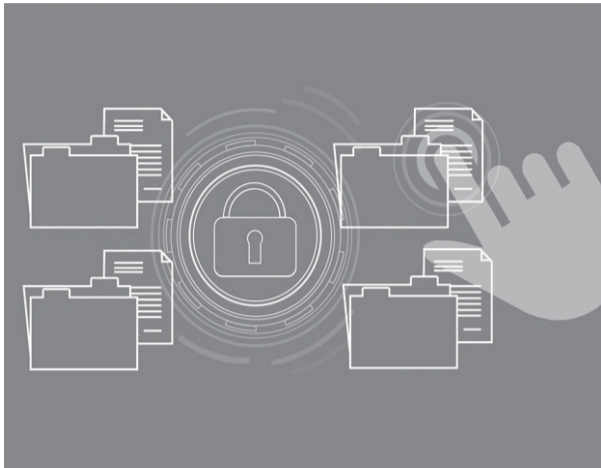
를 생각 중이라면서 이대로는 도저히 버티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은 건물주가 몇 개월분의 임대료를 인하해준다거나 대학생들이 상권이용운동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여 상생하고 있지만, 이곳은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고 아쉬움의 의사를 내비쳤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

은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을 어느 정도 받긴 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말하며, 그 정도로는 가게를 유지하는 데에 어렵도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후문에서 피자과 치킨을 판매하고 있는 미쳐버린 파닭 사장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특별대출을 신청했지만 승인이 나지 않고 있어서 힘들다고 토로했다.

후문에서 컵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밥풀의 사장은 학생들과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대학교나 총학생회에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총학생회 차원에서 후문 상권과 연계해 총학생회에서 지급하는 쿠폰을 가지고 상권에 찾아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나 대학교 차원에서 교내 직원들에게 후문 상권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는 방법을 사용해 양쪽 모두 이득이 되는 방법 등을 마련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배솔민 기자(solmin21@jj.ac.kr)

# 데이터 3법의 숨은 위험, 그 대책은?



지난 5월 30일 21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20대 국회에서 개정하지 못했던 법률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중 하나로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해 8월 5일 시행을 앞둔 데이터 3법의 부족한 규정이 문제시되어 당장의 해결을 요구받고 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중복 규제를 없애고 데이터 활용 폭을 넓히기 위해 만들어졌다. 데이터 3법은 다른 말로 빅데이터 3법이라고도 불리며 4차 산업의 핵심 자원인 빅데이터를 더욱 자유롭게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이 발의된 2018년 당시 스위스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 순위는 63개 국가 중 31위로 중하위권에 위치하며 산업 발전을 위해 이 법안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법이 통과될 시 빅데이터를 통해 바이오, 제약, 금융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용이해지고 이는 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다. 예로 행정자치부는 전주 한옥마을을 시범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했다. 통신사의 유동인구, 신용카드 매출 및 다양한 관광 데이터를 수집해 관광 수요 요인을 파악한 후 성별과 연령별 타깃 그룹까지 설정했다.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관광 현황에 맞는 콘텐츠 개발과 숙박, 주차시설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 일대의 상권이 확대되었고 관광코스의 개발이 고루 이뤄졌다.

이렇듯 활용도가 높은 법안이지만,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법안이 시행되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가 없어도 이름과 연령, 주소 등을 지운 가명정보를 기업과 개인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명정보가 다른 정보와 조합되면 개인을 특정하는 게 가능해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조합해 인물을 알아내려고 할 시 기업의 경우 전체 매출의 3% 이하의 과징금, 개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하지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아닌 사후 처리에 불과한 수단뿐이라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이러한 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엄격한 시행령이 따랐지만, 이번엔 개인이 아닌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명정보를 사용하려면 정보 주체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관행에 따른 데이터 추가 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등의 여러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만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다. 기업들은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데이터는 상업적 가치가 없어 이용이 힘들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몇 가지 조건들의 명확한 해석과 가명정보의 기준이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것도 기업들이 활용안을 찾지 못하는 이유이다. 각 규정이 모호하여 어떻게 손대야 할지 몰라 법안의 유효기간은 끝나가는데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너무 엄격한 기준을 만들면 상업적 가치가 없고 비교적 느슨한 규정을 만들면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난 11일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 시행 전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정보주체가 되는 일반 시민들과의 사회적 논의 없이 개인정보 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업과 정부 사이에서만 대화가 오가는 것을 시민단체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시민단체에서는 개인의 가장 중요한 정보가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될 것이라며 명확한 안전장치의 설정과 함께 반드시 재개정돼야 함을 주장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도입을 시도한 한국당과 직접 국회 통과를 촉구한 민주당이 데이터 3법에 동의한 가운데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강력히 반대했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금 곧 시행을 앞둔 데이터 3법이 산업 발전과 개인정보 침해의 적정선을 지키고 개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 현충일



이주신 (만화애니메이션학과 11학번)

# 함께 이겨낸 역사, 오늘 이어갑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분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이뤄졌다. 그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1956년 제 1회 현충일 추념식을 시작으로 오는 6월 6일은 제 65회 현충일이다.

현충일은 6.25전쟁에서 가장 많은 장병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6월로 지정되었다. 또한 옛부터 24절기 중 망종을 가장 좋은 날이라 여겨 나라를 지킨 장병들에게 예를 갖추고자 1956년 당시 망종이었던 6월 6일을 기준으로 현충일이 지정되었다.

현충일 당일 오전 10시에 전국적으로 사이렌이 울리는데, 경건한 마음으로 1분간 묵념하며 추모를 한다. 우리는 현충일을 쉬는 날로만 인식해선 안된다.

추모 대상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호국영령으로 나뉜다. 순국선열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열사를 뜻한다. 특히,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전까지 일제에 항거하거나 순국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애국지사는 순국은 하지 않은 경우로 일제에 반대-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을 뜻한다. 호국영령은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사람들을 뜻하고, 대표적으로 전사한 장병들을 들 수 있다.

우리는 현충일을 계기로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했다. 국립대전현충원은 서울국립묘지의 인장 능력이 한계에 이르



▲현충문



▲현충탑



▲애국지사 묘

자 지방 국립묘지 설치를 지시하여 설치되었다. 89년 19월 23일, 국가사회공헌자가 최초로 안장되어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183,326의 장이 안장되어 있다.

국립대전현충원을 들어가면 수십 개의 태극기가 펄럭이는 태극기거리를 지난다. 더 들어가보면 호국분수탑이 있다. 엄숙, 경건하고 정적인 현충원에 동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호국의 용기를 북돋우고 충성의 의지를 드높이기 위해 건립되었다.

맞은편을 멀리 보면 현충문이 보이는데, 국립대전현충원의 주요한 건물 중 하나로 현충탑의 출입문이다. 예로부터 충신과 효자를 지켜준다는 호랑이상이 현충문 입구 좌, 우측에 호국영령을 지키고있다.

현충문을 통해 들어가면,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한 현충탑이 있다.(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참조)

앞으로 있을 현충일은 그저 쉬는 날로 생각해선 안된다. 누구를 추모하는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생각하며 경건한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

이수용 기자(yong5135@jj.ac.kr)

#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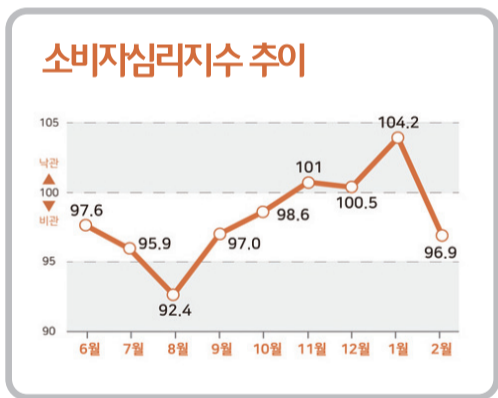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경제 분야에 있어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2월 전체 산업 생산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한 가운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시장도 위축되었으며, 3월 이후 유럽과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대외수요 감소의 영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기하방 압력이 높아진 가운데, 주요국에서는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 등 경기부양 조치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미국 경제는 최근 소비 관련 심리지수가 급락하고 고용상황도 크게 악화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유로존 경제는 소비 증가세가 완만해진 가운데, 생산 부진이 지속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관련 심리지표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중국경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 경제지표가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내수 부진과 대외수요 위축 등을 감안할 때 경기의 하방 압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다수 국가의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OECD를 비롯해 주요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중이다. 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 기준 2.9% → 2.4%로 하향 조정을 했으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게 된다면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IMF가 발표한 'The Great Lockdown'에서 짐작할 수 있듯 세계 경제활동은 마비되었고,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상일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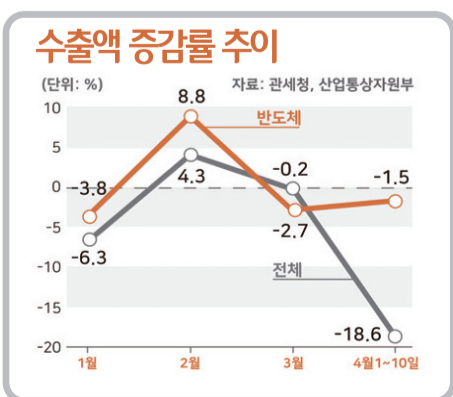
## 소비자심리지수



소비의 경우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매판매액이 감소하고 소비자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소매판매 감소는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와 똑같은 공포심리를 불러왔다. 서비스업 둔화세가 적어도 2분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문에 경제 선은 하반기 이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반도체업종은 중국 내 생산라인의 가동 차질과 수요 감소 우려에도 국내 주력 수출 업종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수출액 추이

3월 수출은 일평균 기준으로 감소 폭이 축소되었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향후 수출을 제약할 것으로



	2020년 실질 GDP 전망 (% YoY)				2021년 실질 GDP 전망 (% YoY)			
	20.04	20.01대비(%p)	20.01	19.10	20.04	20.01대비(%p)	20.01	19.10
세계	-3.0	6.3 ▼	3.3	3.4	5.8	2.4 ▲	3.4	3.6
선진국	-6.1	7.7 ▼	1.6	1.7	4.5	2.9 ▲	1.6	1.6
미국	-5.9	7.9 ▼	2.0	2.1	4.7	3.0 ▲	1.7	1.7
유로존	-7.5	8.8 ▼	1.3	1.4	4.7	3.3 ▲	1.4	1.4
독일	-7.0	8.1 ▼	1.1	1.2	5.2	3.8 ▲	1.4	1.4
프랑스	-7.2	8.5 ▼	1.3	1.3	4.5	3.2 ▲	1.3	1.3
이탈리아	-9.1	9.6 ▼	0.5	0.5	4.8	4.1 ▲	0.7	0.8
스페인	-8.0	9.6 ▼	1.6	1.8	4.3	2.7 ▲	1.6	1.7
일본	-5.2	5.9 ▼	0.7	0.5	3.0	2.5 ▲	0.5	0.5
영국	-6.5	7.9 ▼	1.4	1.4	4.0	2.5 ▲	1.5	1.5
캐나다	-6.2	8.0 ▼	1.8	1.8	4.2	2.4 ▲	1.8	1.8
한국	-1.2	3.4 ▼	-	2.2	3.4	0.7 ▲	-	2.7
신흥국	-1.1	5.5 ▼	4.4	4.6	6.6	2.0 ▲	4.6	4.8
러시아	-5.5	7.4 ▼	1.9	1.9	3.5	1.5 ▲	2.0	2.0
중국	-1.2	4.8 ▼	6.0	5.8	9.2	3.4 ▲	5.8	5.9
인도	-1.9	3.9 ▼	5.8	7.0	7.4	0.9 ▲	6.5	7.4
아세안 5개국	-0.6	5.4 ▼	4.8	4.9	7.8	2.7 ▲	5.1	5.2
브라질	-5.3	7.5 ▼	2.2	2.0	2.9	0.6 ▲	2.3	2.4
멕시코	-6.6	7.6 ▼	1.0	1.3	3.0	1.4 ▲	1.6	1.9
남아공	-5.8	6.6 ▼	0.8	1.1	4.0	3.0 ▲	1.0	1.4
터키	-5.0	8.0 ▼	-	3.0	5.0	2.0 ▲	-	3.0

판단된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 1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수출은 3.7% 줄었다. 4월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6% 줄었다.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확산이 수출 전반에 본격적으로 타격을 입히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수출 추이를 보면,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1월 수출은 전년보다 조업일수가 적은 탓에 6.3% 감소했지만, 2월은 반대로 조업일수가 많아 수출액이 4.3% 늘었다. 3월은 0.2% 소폭 줄어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달 전체 실적은 코로나19의 영향뿐만 아니라 조업일수까지 지난해보다 이를 적어 3월 수출 실적보다 훨씬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급락하면서 정부와 한국은행 역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수출 비중이 80%에 달하는 국내 경제구조 특성상 수출 타격이 커질수록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해서 하향조정 할 수밖에 없다.

## 코로나19 이후 경제지형

시장의 하락세로 인한 경기 침체가 어떤 시나리오로 성장과 회복이 될지 의문이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BCG의 전략 담당 파트너들이 HBR에 긴급 진단을 내렸다. 다음 세 가지 V-U-L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V자형의 경우 실물경제가 충격을 받아서 생산량이 감소하지만 성장으로 돌아선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코로나의 충격은 연간 성장률로 완전히 흡수되는 것이다. 코로나19처럼 압박한 상황에서 너무 낙관적인 전망으로 보일 수 있다. 사스,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등 웬만한 전염병 충격은 대부분 V자형의 경로로 회복됐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가 U자형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 회복이 향후 2~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회복시기의 관건은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개발이 늦어질 경우 나이키형 회복세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지속되면서 생산량이 계속 감소되고 있다. 공장이 문을 닫고 공급망이 망가지면서 생산이 중단되고 강제 무급휴직과 정리해고가 발생한다는 점이 우려된다. 최악의 상황인 L자형은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면 노동시장이나 금융시장의 일부가 크게 파괴되는 시나리오이다.

지금까지 U자형 시나리오가 유력하지만,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전망과 지표만으로는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 GDP 전망치는 안정기에도 완전히 맞지 않으며 향후 바이러스 상황이 어떻게 진화될지, 대응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소비자와 기업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불확실하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예측하는 수치만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여러 자산군에 대한 시장 신호, 경기침체와 회복 패턴, 과거 전염병과 충격의 경험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앞으로의 상황을 통찰해 최악의 상황인 L자형이 오지 않도록 사태를 진정시켜야 한다. 과거를 보면 2003년 사스 중국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에 친숙해지면서 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발판 삼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훨씬 더 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글: 유성훈 기자(ysh3277@jj.ac.kr)

일러스트: 국한별 기자(201873008@jj.ac.kr)

### IMF 외환위기 시절은? V자형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었다가 빠르게 회복되는 패턴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경우 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IMF 외환위기 시절이 V자 곡선에 해당됩니다. 1997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5.7%로 좋지 않았지만 1999년에는 10.7%로 기적으로 회복한 바 있죠.

### 가장 일반적인 U자형

U자형 경기순환곡선은 경기가 천천히 하강했다가 천천히 상승하는 패턴입니다. 최저점을 찍었을 때 보통 2~3년이 유지됩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기 흐름입니다.

### 경기 침체에 빠지면? L자형

경기가 침체에 빠진 후 장기간 불경기가 지속되는 패턴은 L자형 경기순환곡선입니다. '일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1980년 버블경제 후의 일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



전 세계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국내에서만은 코로나19로 인한 힘들음을 조금씩이나마 극복하고 있는 양상이다. 물론 한 구역에서 집단적으로 감염되는 사례로 인해 끝날 조짐이 보임에도 끝나지 않는 모습을 띄기도 하지만, 생활 속 방역이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모습도 동시에 보인다.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는 단어가 '포스트 코로나'이다. 코로나 정국 이후를 대비하려는 이유 때문인데, 이번 호는 '포스트 코로나'에 주목한다.

## 포스트 코로나란

포스트 코로나(Post-COVID)는 '이후'를 뜻하는 영어 'Post'와 코로나19의 합성어로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나타나는 새로운 시대, 달라진 일상,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뜻한다.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해, 그리고 그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사회는 크게 변화했다.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찾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렇게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찾아올 변화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코로나 국면이 종결되면서 나타날 큰 변화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키워드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 키워드는 일부 사람들만 단순히 쓰는 단어가 아닌 정치권부터 경제인들,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키워드로 입지가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에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기도 하고, 대국민 연설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연설했다. 경제인들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공모전 등을 개최하기도 했고, 국민들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여러 가지 상품을 찾거나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 어떤 변화가 찾아오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관심을 갖는지 후술해보도록 하겠다.

## 언택트 문화의 발전

'언택트'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영어 접두사 'Un'과 접촉을 뜻하는 단어 'Contact'의 합성어로 비대면·비접촉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생활 속 거리두기가 확산함에 따라 유행하게 된 생활방식이다. 기존에도 기술의 발전을 이유로 떠오른 신조어였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언택트 문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해당 단어의 존재감이 급부상했다.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거나, 비대면 강의를 실시하고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등 생활 전반에 있어서 대면이 필요 없음을 강조하는 생활방식이다. 먼저 물건을 구매함에 있어서의 언택트를 살펴보자면, 실제로 오프라인 구매가 많이 줄고 온라인 구매가 많이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외출하지 않고 집안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홈코노미'(Home + Economy) 역시 유행하고 있다.

사람들은 커피숍을 가는 대신 집에서 만드



는 '달고나 커피'에 주목했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대신 집에서 운동하는 '홈 트레이닝'에 주목했다.

언택트 문화의 발전은 재택근무 역시 촉진했다. 근본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재택근무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기업에서도 재택근무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다양한 대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기존의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를 결합한 '유연 재택근무제' 역시 도입돼 보편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언택트 문화는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기존과 다른 변화를 안겨줬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가 비대면 강의, 온라인 강의를 실시했다. 따라서 화상 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플랫폼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렇게 된다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비대면 강의는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로 4차 산업혁명에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이다. 다수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원격 솔루션 등의 첨단기술의 수요가 증가하고 발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금융계에서도 언택트 문화로 인해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도 이미 많은 변화가 우리 앞으로 찾아왔다. 과거에는 설계사를 직접 만나고 증권사나 은행을 직접 찾아가야 가능했던 일들이 이제는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디지털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부분은 앞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 자연환경의 회복

그 외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친환경 분야가 중요해질 것으로 점쳐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외출이 자제됨에 따라 생태환경이 회복되는 뜻밖의 결과가 찾아오게 됐다. 대기오염 국가들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게 되면서 대기가 회복돼 맑은 하늘을 보았다. 사람의 발걸음이 뜬해진 곳에는 기존에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야생동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오존층이 일부 회복되었다는 기사도 접할 수 있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인들은 환경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졌고, 국제사회는 친환경을 내세우며 코로나19의 회복과 동시에 기후 친화적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친환경이라는 키워드 역시 다시금 떠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그린 뉴딜 정책이 다시 화두가 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요즘 그린 뉴딜이 화두"라고 말하기도 했고,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치권 역시 그린 뉴딜정책을 비롯한 각종 친환경 정책의 성장으로 친환경 일자리 등을 창출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경제와 환경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것을 기대하고 있다.

## 대비가 필요한 포스트 코로나

그 밖에 변화로는 방역 및 위기 대응력이 선진국임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보였던 행보들과는 달리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이 열악한 국가들을 여럿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전염병 위기 대처 능력이 알려졌는데, 전염병 확진자 수, 동선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의식 등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 찾아오게 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 예측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고 미리 움직이는 것이 다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모습일 것이다. 이전과는 다른 시대로 찾아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류의 미래세대에 어떤 방식으로 이득을 가져올지 앞으로 주목해봐야 할 것이다.

글: 배솔민 기자(solmin21@jj.ac.kr)

일러스트: 김은지 기자(dmsw11259@jj.ac.kr)



# 플라스틱의 재활용



“ 우리나라는 1년 동안 얼마만큼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할까? 그린피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1인당 일회용 생수 페트병 96개, 일회용 비닐 봉지 460개, 플라스틱 컵 65개로 일 년에 약 11.5kg의 플라스틱을 소비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연간 약 50만 톤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매년 발생하는 5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22.7%밖에 되지 않는다. 재활용되지 못한 채 땅에 매립되는 폐기물이 분해되는 시간은 자그마치 500년 이상이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썩으면서 여러가지 오염 물질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켜 발생하는 해로움이 결국 인간에게 돌아온다. 환경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한번 쓰고 버려지는 무분별한 일회용품의 사용은 우리 모두가 지양해야 하는 점이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상품도 언젠가는 폐기물로 버려질 것이지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플라스틱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보았다. 모두가 제로 플라스틱을 실천하는 세상이 오길 바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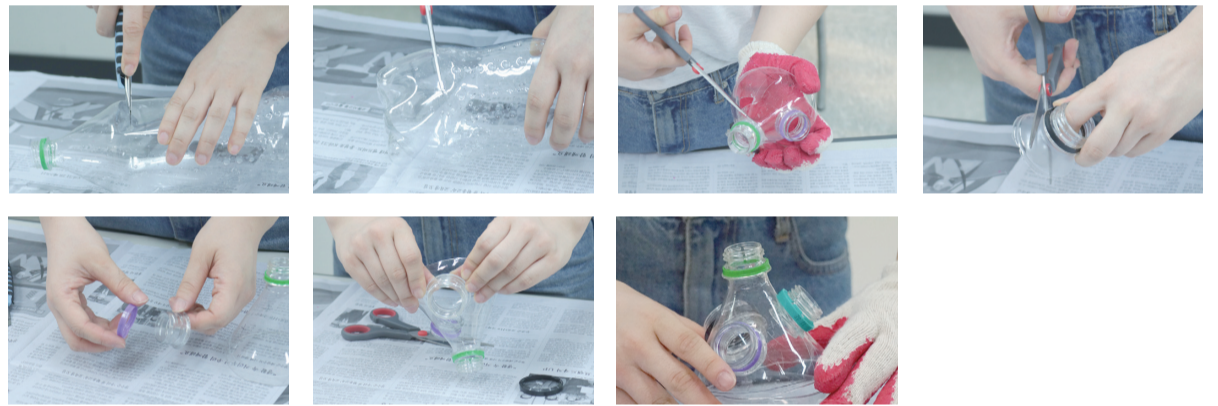
※ 유튜브 채널 전주대학교 교육방송국 JEBS에서 영상으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정령 기자(giyomi123@jj.ac.kr) / 이수용 기자(yong5135@jj.ac.kr)



## 칫솔 홀더

재료 : 1.5L 페트병 1개, 병목이 큰 페트병 1개, 500mL 페트병 2개



1. 1.5L 페트병의 상단과 하단을 각각 1/4 크기로 칼과 가위를 이용해 잘라준다.
2. 단면이 날카롭지 않도록 가위로 다듬어 준 후, 미리 예열시킨 다리미에 3~5초간 녹여준다.
3. 잘라 놓은 페트병 상단에 구멍 낼 곳을 표시한 후, 십(十)자로 칼집을 내고 가위로 병목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동그란 구멍을 만든다.
4. 준비한 나머지 페트병의 병목을 칼과 가위를 이용해 잘라주고, 끝이 날카롭지 않게 잘 다듬어준다.
5. 자른 병목들과 플라스틱 링을 분리하고, 페트병 상단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병목을 삽입한다. 그리고 다시 플라스틱 링을 끼워준 뒤, 페트병의 상단과 하단을 연결해준다.

깔끔하고 유용한 칫솔 홀더가 완성되었다.

칫솔 홀더 간에 간격이 있어 다른 사람의 칫솔과 내 칫솔이 닿지 않아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페트병 화분

재료 : 일회용 플라스틱 컵, 1.5L 페트병, 심고 싶은 모종, 원예용 상토 혹은 퇴비, 물티슈



1. 1.5L 페트병의 상단을 1/3 크기로 잘라주고 병뚜껑에 작은 구멍을 낸다.
2. 병뚜껑을 잘라 놓 페트병에 끼워주고, 잘 세척한 물티슈를 구멍을 낸 병뚜껑과 페트병까지 연결한다.
3. 일회용 컵에 병뚜껑이 바닥을 향하게 하도록 페트병을 삽입한다.  
원예용 상토를 조금 깔아준 뒤, 준비한 모종을 심고 흙과 상토로 모종의 뿌리를 덮어준다.
4. 일회용 컵에 물을 적당히 담아주고, 모종을 심은 흙에도 물을 흠뻑 적셔준다.

스스로 물을 먹는 '페트병 화분'이 완성되었다. 따로 물을 주지 않아도 물과 페트병 화분을 연결하고 있는 물티슈가 항상 촉촉한 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동 급수 화분이라고도 불리며 일회용 컵에 물이 줄어들면 따로 물을 보충해주면 되어서 간편하다. 양파나 토마토, 딸기 등 다양한 모종을 심을 수 있고 텃밭이 없는 아파트에서 키우기에도 좋다.



**PET 필통**

재료 : 같은 모양의 500mL 페트병 2개, 지퍼, 글루건



1. 라벨지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은 페트병 하단의 2/3 길이를 칼과 가위를 이용해 잘라준다. (펜으로 자를 부분을 표시한 후, 칼집을 내어 자르면 더 편리하다)
2. 필통의 윗부분이 될 다른 페트병의 하단을 1/3 정도의 길이로 잘라준다.
3. 잘린 페트병의 날카로운 단면을 미리 예열시킨 다리미에 3~5초간 녹여준다.
4. 길이가 긴 페트병의 단면에 글루건을 조금씩 바른 후, 지퍼를 붙여준다. (글루건을 한꺼번에 바르면 글루건이 금방 굳기 때문에 조금씩 바른다)
5. 잠겨 있는 지퍼를 연 뒤, 길이가 짧은 페트병의 단면에 글루건을 바르고 지퍼를 붙여준다. 마스킹 테이프나 컬러 네임펜 등을 사용하여 장식한다.

투명한 페트병이 필통으로 탈바꿈하니 어떤 펜이 들어있는지 내용물을 쉽게 찾을 수 있고, 폴리에스테르 수지 소재가 내구성이 좋아 생각보다 튼튼한 필통이 완성됐다. 가장 큰 장점은 마스킹 테이프를 활용해 때마다 변화를 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꾸밀 수 있어 단 하나뿐인 나만의 필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필꽂이**

재료 : 1.5L 페트병, 글루건, 면 뜨개실, 장식용 반짝이



1. 라벨지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은 페트병을 칼과 가위를 이용해 반절로 자른다.
2. 자른 페트병을 대각선이나 일직선의 모양으로 다듬으면서 펜의 길이보다 1~2cm 짧게 자른 후, 미리 예열시킨 다리미에 단면을 3~5초 정도 녹여준다.
3. 페트병의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에 글루건을 사용하여 면 뜨개실을 접착시켜준다. 단면에 글루건으로 반짝이를 붙이거나 마스킹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꾸며준다.

가장 쉽게 만들 수 있으며 큰 페트병으로 만들어 많은 양의 필기구를 보관할 수 있다. 글루건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문구나 이름을 적은 후, 반짝이를 뿌려주면 더욱 멋진 연필꽂이가 완성된다. 재활용 상품이지만 책상 위 기성품들과 거리낌 없이 잘 어울린다.

**가로세로 낱말퀴즈**

**가로**

- 1) 바둑판 같은 바탕에 해답의 글자 수만큼 빈칸을 가로와 세로로 엇갈리게 배열해 놓고, 가로로 답을 하는 문제와 세로로 답을 하는 문제를 풀어서 빈칸을 채우는 놀이.
- 2) 고대 그리스의 이솝이 지었다는 우화. 동물을 의인화하여 인간 세계를 풍자함.
- 3) 조선 후기 속종 때 만든 엽전의 이름.
- 4)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이다. 같은 말로 탈진증후군이라고 한다.
- 5) 종이, 붓, 먹, 벼루의 네 가지 문방구.
- 6) 세계 최초의 동력 비행기 제작자인 미국의 윌버 라이트와 오빌 라이트 형제를 이르는 말.
- 7)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일의 첫 부분 혹은 사건의 실마리.

**세로**

1. 초식동물의 북한말.
2.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서비스로서 PC 카메라 보급이 확산되면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3. 지급이 보증된다는 뜻으로, '자기앞 수표'를 달리 이르는 말.
4. 조선시대 성종이 노사신들에게 명하여 만들게 한 우리나라의 관찬지리지.
5. 우리나라에서 1970년부터 실시된 제도로, 우편물을 쉽게 분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역마다 매긴 번호.
6. 사람들이 보는 현실세계에 3차원의 가상물체를 띄워서 보여주는 기술.
7.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8. 어물어물 망설이거만 하고 결단성이 없음.

**\*알림\***

- ※ 2회 연속 당첨자는 다른 분들을 위해 1회 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동일학과는 2명으로 제한 하겠습니다!
- ※ 각 문항의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6월 10일(수)**까지 카톡플러스 친구 '전주대신문사'로 보내주세요. **추첨 5명**에 한하여 상품으로 **공차 1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 ※ 상품 수령 : 카카오톡 상품권으로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899호 퀴즈 정답자 5인]

- 1.엄세민(건축학과)
- 2.이다영(중등특수교육학과)
- 3.곽소라(운동처방학과)
- 4.이영호(상담심리학과)
- 5.고나향(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1)		1.								
			2)		2.					
					3)		3.			
										4.
6)										7)

	가로	세로
지난 899호 (2020년 5월 13일 발행) 가로세로 낱말퀴즈 정답	1. 불꽃놀이	1. 놀이공원
	2. 원두막	2. 막바지
	3. 상상력	3. 이효상호
	4. 수도권지	4. 실업수당
	5. 적극적	5. 적색수배
	6. 배드민턴	6. 민주개혁
	7. 혁명가	7. 자가용
	8. 저승사자	8. 달보드레
	9. 용기	

# 역대 신문사 주간 교수님 축하인사말

##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문서사역으로 발돋움하길”



장선철 교수(심리상담학과)

『내게 26개의 납으로 된 군병을 주시오. 그러면 나는 세계를 정복할 것이오.』 (Benjamin Franklin).

『인쇄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독교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Martin Luther).

이 말은 문서의 위력과 중요성, 그리고 문서의 역할을 잘 표현하고 있다.

Miriam Adeney는 문서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쇄된 문서는 보존하기 쉽고 여러 번 읽을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다.

읽는 사람들의 뇌리와 심중에 깊이 침투할 수

있다. 굶주려 허기진 영혼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에 대해 분명한 설명을 해 준다.

신문과 같은 정기간행물의 경우 다양한 독자를 하나로 묶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글을 실음으로써 어떤 문제나 현상에 대해 복음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듯, 문서는 때에 맞고(timely) 정확하고(accurate) 적절하고(appropriate) 동기를 부여하는(motivating) 정보를 제공하며,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influence), 복잡한 현상에 대해 깊이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주며 (in-depth thinking), 일반적으로 외치고 그저 듣기만 하는 현대인, 특히 젊은이들에게 생

각하는 힘을 길러줌으로써 정신적, 영적 성장을 격려하고 도전, 고취하게 하여 성숙한 한 개체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게 한다. 나아가 성도들에게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주제들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줌으로써 세속문화를 변혁시키는 주체로 성장하게 한다. 이런 문서를 매개체로 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의 삶과 문화를 변혁시키는 사역이 바로 문서 사역이다.

하나님의 대학 전주대학교에서 이뤄지는 문서 사역, ‘전주대학교 신문’이 어느새 지령 900호를 맞았다. 진심으로 축하하며, 전주대학교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문서 사역’으로 더욱 발돋움하길 기도한다.

## “뜻대와 정체성”



김문택 교수 (경배와찬양학과)

1965년부터 시작해 드디어 900회를 맞이한 전주대학교 신문의 뜻깊은 날을 기뻐하며 축복합니다. 수없이 많은 날과 수없이 많은 역사 그리고 수없이 많은 땀방울이 함께하여 900호라는 귀하고 아름다운 결과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많은 역사 그리고 수없이 많은 땀방울이 함께하여 900호라는 귀하고 아름다운 결과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2014년 전주대학교 50년사를 전주대학교 50년사 편찬위원회에서 방대한 자료와 내용을 준비해 대업을 이뤄냈었고, 필자는 당시 신문방송국장으로서 학생 기자들과 함께 50년사 편찬위원장이셨던 이재운 교수님(역사문화콘텐츠학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다. 전주대학교의 역사를 편찬하는 작업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료모집에 관한 일이었는데, 개교 이후 모든 신문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전주대학교 신문방송국의 자료가 전주대 50년사 편찬에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내용의 인터뷰가 기억에 남는다. 또한, 신문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중요성 그리고 사명감에 대한 여러 교수님의 격려 말씀은 본인을 비롯한 학생 기자들 모두에게 산고의 고통에 비유되기도 하는 신문발간의 어려움을 뒤로 제치고 달려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던 아름다운 추억이 되새겨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렇듯 신문은 소식 전달통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보관, 보존이라는 막중한 임무와 더불어, 미래를 향한 건강한 비전을 나누는 소중한 곳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훌륭하게 이뤄낸 이 소중함을 어떻게 전주대학교의 미래를 위해 더욱더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뜻대를 놓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늘 시대와 문화는 변하게 되어있고 또 변해간다. 지나가는 환경에 집중하다가 정작 본인의 정체성을 잊게 될 때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생명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문사의 정체성은 공동체의 정확한 역사관이며, 우리 전주대학교 공동체의 정체성은 ‘기독교 정신의 구현’에 있다. 전주대학교 캠퍼스도 계절의 꽃을 따라 색깔이 바뀌어 가듯이 세상의 주변 환경도 계속 변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개념과 유명한 문구는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이 되는 뜻대를 더욱 명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확인해 주고 있다.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정확히 품고, 뜻대를 들어 힘차게 나아가는 전주대학교 신문사의 1000호, 2000호 발간을 그려본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The people I formed for myself that they may proclaim my praise.)

(이사야 43:21)

## 신문 900호를 기념하며..

진서하 기자(201915015@jj.ac.kr)

### “하나님의 대학, 전주대학교의 건학이념을 대변하는 전주대신문이 되길”



#### 양병선 교수 (영미언어문화학과)

1965년 5월 15일 창간된 전주대신문이 55년 만에 900호를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간호부터 900호

까지 발간되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의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전주대신문은 1964년 5월 5일 전주대학교의 개교 바로 다음 해에 창간호를 발간해 지령 900호를 발간하기까지 전주대학교와 함께한 신문입니다. 따라서 전주대학교의 역사와 함께 해 왔습니다. 4면 흑백으로 창간되었던 전주대

신문은 이제는 16면 컬러로 제작·발간되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 정신의 구현’이라는 대학의 설립이념을 실현키 위해 노력해왔던 전주대를 대표하는 신문입니다. 1면의 기도문을 필두로, 11면의 신앙과 선교면, 전주대의 국제화 시대를 반영한 14~15면의 The JJ Globe면을 통해 다른 대학신문과는 완전히 다른 전주대 신문만의 독자성과 유일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전주대는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대학입니다. 다른 대학과는 존재 이유가 다릅니다. 이러한 설립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전주대는 지난 56년 동안 모든 구성원이 지역사회 및 교회와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이젠 자타가 인정하는 호남 유일의 기독교 명문사학으로

굳건하게 우뚝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며,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이러한 전주대학교를 대표하는 전주대 신문 또한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위해 지난 55년 동안 정진해 왔습니다. 다른 대학신문과는 달리 하나님의 대학 전주대학의 정체성을 대변해주는 세계 유일의 대학신문입니다.

앞으로도 전주대학의 설립이념인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전주대신문으로 지속,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9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 “기다려지는 신문이 되길”



#### 박기범 교수(국어교육과)

〈전주대신문〉 9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신문방송국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소회와 기대를 전하고 싶다.

돌이켜 보니, 2018년 이른 봄에 학교로부터 신문방송국장으로 임명을 받아 만 일 년 동안 일한 것 같다. 그때 875호부터 886호까지 12회의 신문을 발행했는데, 그 신문들은 지금까지 나의 연구실 한쪽에 잘 보관되어 있다. 이 글을 쓰려고 다시 책상 위에 펼쳐 놓으니 그 신문들을 함께 만든 학생 기자들의 얼굴과 마감이 쫓겨 분주하게 움직였던 학생회관 320호 신문사 공간과 디자인과 교정으로 머리를 맞대고 수정 작업을 했던 〈교차로〉 편집실 광경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른다.

오늘날에는 신문이 과거와는 달리 다채로운 사진과 영상으로 빠르게 전파되는 미디어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밀려나서 구성원들 사이에 신속하고 원활한 정보 교류나 의견 개진을 통해 공동체의 소속감과 결집력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전주대신문〉을 ‘읽고 싶은 신문’, ‘기다려지는 신문’으로 만들 수 있을까 기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은 결과, 다음과 같은 신문 제작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더 많은 학생, 교수, 직원들이 신문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심층 보도의 기획 기사를 잘 만들어 다른 미디어와 차별화하자, 학과와 학생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성과를 많이 다루자, 학생들이 참여하면 좋을 만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널리 광고하자,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의 자랑스러운 업적이나 학교의 발전 상황을 자세히 알려서 학교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이자, 국제 학생과 국내 학생의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자,

건학이념인 기독교의 사랑과 헌신이라는 학교의 정체성을 지키자...

책상 위에 펼쳐진 그때의 신문들을 다시 찬찬히 들여다보니, 어느 정도 그 시절 기자들과 의기투합하며 세워 보았던 제작 방향이 그대로 잘 실현된 것 같기도 하여 마음이 뿌듯해지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는 신문 발행 이후에 발견한 기사 오류나 엉성한 편집 상태가 눈에 띄어 아쉬움에 눈살이 찌푸러지기도 한다.

학교의 다른 일을 맡아서 본의 아니게 신문방송국장을 일 년 만에 그만뒀야 했지만, 여전히 나는 우리 대학에 부임해서 가장 보람 있게 여기는 경험 중 하나가 바로 이 일이다.

다행히 〈전주대신문〉은 건실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보도 사진이 더욱 전문적으로 발전했고, 기자들도 꾸준히 모집되어 대내외 교육을 통해 기자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전주대신문〉이 1000호, 2000호가 되도록 대학신문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곳곳이 지켜나가길 부탁드리며, 전주대 신문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한다.

# ‘2020-1학기 채플 진행-문화채플 편’



국가적인 전염병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확산 방지 및 대처 차원에서 2020-1학기 채플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프라인 개강이 진행될지라도 채플은 1학기 전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며, 각 채플의 특성에 맞게 테마를 유지하며 채플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문화채플’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강인혁 교수님(문화채플 담당교수)과 이유정 선생님(문화채플 담당 행정원)을 인터뷰했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강인혁 교수님 :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대학교에서 문화채플과 경배와찬양학과 예배예술실기 수업을 맡고 있는 강인혁 교수입니다.

이유정 선생님 : 안녕하세요. 문화채플을 담당하고 있는 이유정 행정원이라고 합니다.

**Q. 문화채플의 담당으로서 문화채플의 큰 장점(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강인혁 교수님 : 문화채플은 이름과도 같이 음악, 공연, 강의&메세지 등의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채플입니다. 이와 같은 콘텐츠를 가지고 진행되는 채플이니만큼 학생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편안하게 수강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문화채플만의 특징이라면 아무래도 주제강의인 ‘음악이 있는 성경이야기 B.M.D’(Bible music drama)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M.D는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전공(음악, 신학)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주제와 관련된 음악을 먼저 들려주고(채플밴드와 함께 직접 연주) 이와 관련된 기독교의 진리를 전달함으로써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의 가치관을 거부감 없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유정 행정원 : 문화채플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채플이다보니 학생들이 조금 더 편하게,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채플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채플 밴드가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어요. 강의 시작 전 오프닝 곡이나 B.M.D 주제강의와 관련된

곡들을 직접 연주하고 노래하며 수강생들에게 진정성있게 다가가려고 하는 채플 밴드가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문화채플 봉사자들이 수강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생각하고, 진행함으로 수강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 이런 모습들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이번학기 온라인으로 채플을 진행하면서 힘든 부분은 없으신가요?**

강인혁 교수님 : 아무래도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화 콘텐츠는 현장감과 무대와 객석의 호흡이 생명인데 그런 것들이 영상을 통해 공유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신자 학생들의 경우 가끔 제 연구실에 찾아와 기독교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묻기도 하고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는 등 학생들과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그런 시간들이 없는 것도 저에게는 큰 아쉬운 점입니다.

이유정 선생님 : 무엇이든 처음은 어색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처음이다보니 여러 전반적인 진행사항에 어색함도 조금 있었고, 수강생들과 직접 소통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어요. 또한 매주 촬영을 해야 하다보니 카메라가 익숙해져야 하는데, 조금 어색했던 부분..? 물론 지금은 한 학기의 반절이 넘어가서 그런지 이제는 카메라와 좀 친해진 것 같긴 해요(화면에 나오는 모습을 보며 다이어트도 결심했어요.)

**Q. 마지막으로 문화채플을 듣고 있는 수강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강인혁 교수님 : 문화채플을 수강하고 있는 전주대학교의 멋지고 아름다운 학생 여러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담당교수인 저를 포함한 밴드와 봉사자들로 구성된 우리 문화채플팀 모두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언제나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고 또한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부디 힘 내시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계



속해서 여러분의 미래와 비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유정 선생님 :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들 역시 삶의 패턴이나 상황들이 달라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시죠? 지치고 힘든 가운데 문화채플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채플 밴드와 봉사팀은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고, 힘이 되는 더 좋은 강의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좋은 모습으로 직접 만나 소통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채플인 만큼 조금 더 신경써주셔서 미ape스 없이 모두들 즐겁게 패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항상 문화채플 강의 영상 마지막에 하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더 힘내시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문화채플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지원실 이유정 (dbwjd8530@jj.ac.kr)

## 예배안내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 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도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병수 목사 (대학교회 205호)  
이진호 목사 (대학교회 206호)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만남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대화이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요, 끊임없이 치솟는 성취욕구와 집착과 탐욕을 훌쩍 뛰어넘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다.

▼ 케빈 밀러(Calvin Miller)의 말이다. “탐닉과 영성을 맞바꾼 우리는 자유를 잃은 것이 되었다. 파스칼이 옳았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만 채워 줄 수 있는, 하나님 형상의 공허가 있다... 하나님이 그 내면의 공허를 성령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는 산다. 그러나 그 공허가 채워지지 않으면 파괴적인 욕구들이 우리의 좋은 의도들을 통해 때를 지어 몰려든다.” 그는 계속해서 말한다. “그것은 능력을 주시는 위대하신 분과 동떨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늘 나타나는 일종의 무력감이다. 우리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는 여지를 남겨 두지 않으면 결국 번잡한 제자도의 요란스런 일정들만 남게 된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도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번잡함을 떠나 변함없는 헌신과 고요히 흡모하는 삶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코 요란스러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형적인 성취를 추구하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외시적인 기도에 매달려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잘 하는 사람’임을 은연 중 자랑하거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은근히 과시하려고 한다. 예수님이 꾸짖은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밀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아침에 불병거를 위해 기도하고 어둑해질 무렵 그 불병거를 타고 교회로 가기 원한다. 불을 위해서는 거의 기도하지 않으면서 손에 들고 있는 성냥갑을 찾으려고 눈을 뜬다.”

▼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 주신 ‘은밀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상이 따른다. 그 응답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최선이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갓 으시리라”(마 6:6).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 기도문

### 모든 만물의 생사와 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계절에,  
어두움과 죽음의 공포를 바라봅니다.  
질병으로 떠나고,  
남겨지고,  
고통 받으며,  
싸워야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  
옵소서.  
주님만이 피난처여 반석이심을 알게 하시  
고,  
각자의 선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용기 또한 허  
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의 음란함과 이단의 그릇됨을 온전  
히 드러내시는 하나님.  
주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혼돈케 하였던 이  
땅의 백성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밝음과 짙맛을 잃은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하  
시며,  
오직 주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평등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게 하옵소서.  
신록의 계절에,  
너무나 진속하여 소홀히 여기고,  
늘 있어 당연함으로 여겼던 주위를 돌아보  
게 하옵소서.  
전주대학교가 주님의 자람이 되게 하시며,  
이곳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에 주님의 사  
람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처음과 끝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류두현 부총장



### 진리의 샘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조교수 / 대학교회 담임목사)

세상의 섬뜩한 사고들이 사람들 사이에 거리낌 없이 내뿜는 언사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경계해야 한다.

신체적인 문제와 죄를 결부시켜 이해하는 1세기의 유대인 문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혁신적인 사고가 등장했다. 맹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태도와 관점이 바로 그것이다.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한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애정이 느껴진다. 그리고 주님은 한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영광과 결부시켜 이해한다. 한 사람의 연약함에 대한 시대의 냉혹한 풍조와 예수님의 기막힌 해석이 첨예하게 대립된다. 연약함이 죄의 결과라는 세상의 관점은 연약함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는 영광의 준비라는 주님의 관점으로 대체되고 있다. 사고의 혁명이다.

오귀스트 콩트는 인간의 역사를 신화의 시대와 본질의 시대와 기능의 시대로 구분했다. 역사가 신 중심의 사고에서 시작하여 본질 중심의 사고를 지나 기능 중심의 사고로 흘렀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오늘날의 사람들은 한 사람의 가치와 존재의 무게를 대체로 사회적인 기

맹인으로 태어나면 누군가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의 풍조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맹인의 면전에서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요 9:34)라며 인격적인 비하와 멸시도 서슴지 않을 정도였다. 게다가 제자들도 그런 시대적인 사고에 젖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냐"고 예수님께 질문했다.

## 관점의 혁신

능, 경제적인 기능, 정치적인 기능, 신체적인 기능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인간은 존재 그 자체로 존귀하다. 기능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존재 자체의 존귀함이 사고의 마침표가 아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까지 이르러야 한다.

한 사람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드러낸다. 영광의 출구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울은 독특한 어법으로 묘사한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1:27-29).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죄의 결과로 간주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육체의 자랑을 배제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의로운 병기로 사용한다.

우리 주변에는 맹인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

이 많다. 그러한 분들을 만나고 동거할 때마다 예수님의 관점을 기억하자. 주님처럼 환자를 치유하자. 유대인과 같은 멸시자를 적대하지 말고 관점의 거듭남을 통해 돌이키게 하자. 한 사람이 가진 모든 선천적인 연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주님의 관점을 고수해야 한다. 사람들의 모든 선천적인 연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연주하는 악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연약한 상황도 동일하다. 고통과 환란의 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절호의 기회이다.

연약한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그 자체가 세상의 사고를 허무는 혁명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태도를 따라 처신하면 우리도 속한 모든 기관에서 조용한 혁명가가 된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사람들의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목격하라. 보일 때까지 주목하며 관찰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 모든 것들이, 심지어 지극히 연약한 것들이라 할 지라도, 심지어 악인들도 악한 날에 적당히 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관점으로 세상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혁명하라.

### ■ 현장에서 보는 세계기독교역사 이야기 미국편(7)

# 대각성운동 이후 이어진 미국교회 성장과 한국 선교



▲ 아펜젤러가 대학시절에 다녔던 교회



▲ 한국 선교의 가능성을 거론한 가우처 목사가 시무한 교회



▲ 빌리그래엄 기념교회

18세기 조지 휘트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무디 등 부흥사들에 의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각 교파로 하여금 해외로 향하는 새로운 선교열을 태동되게끔 하였다. 이에 1810년 미국회중교회외국선교본부(The American Board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를 시작으로 1814년에 침례교회외국선교부가 조직되었고 1832년에 감리교단과 1833년에는 각각 인도에서 선교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해외선교는 미국 젊은 신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후일 한국선교와 관련이 되는 외국선교자원학생축기운동(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과 면려청년회(勉勵靑年會: The Young People's Society of Christian Endeavor) 등 학생들의 선교 운동이 19세기 후반에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 무렵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도 신학도로서 선교 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실제로 1883년 10월 24-28일 코네티컷주 하트포드에서 열린 신학교 연합회에 두 사람이 참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같은 해, 다른 각도에서 한국선교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일이 생겼다. 이는 다른 아님 민영익과 가우처 목사의 우연한 대면을 말한다. 미국은 1882년 한미수호조약이 체결되자 푸트(Lucius H. Foote)를 한국 주재 공사로 파견하였다. 이에 대한 답례로 고종이 전권대사로 임명하였고 민영익은 홍영식, 서광범, 유길준 등 12명의 사절단이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워싱턴으로 가는 기차에서 볼티모어 감리교회의 가우처(John F. Gaucher)목사를 만나게 된다.

가우처목사는 옷차림이 특이한 일행을 보고 호기심에 말을 걸었고 민영익으로부터 한국의

상황을 듣게 되었으며, 한국선교의 가능성을 감지하였다. 그는 한국선교를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하였고 동시에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 정부와 접촉하도록 제의하였다. 이에 맥클레이는 김옥균을 통해 고종에게 선교 의향을 전했다. 이어 1884년 7월에 맥클레이는 김옥균으로부터 '고종은 교육과 의료사업은 가능하다는 것을 구두로 윤택하였다'는 희망적인 사실을 전해 들었으나, 그해 12월에 갑신정변이 발생하였다. 이 정치적인 사건으로 선교가 싹도 트기 전에 무산되는 듯 했다. 그런데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고 오히려 이 사건이 선교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된 것이다.

왜냐면, 갑신정변으로 자객의 칼에 중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던 민영익을 당시 의사의 신분으로 와 있던 미국 선교사 알렌이 치료해준 덕분이었는데, 민영익은 앞서 말한 대로 미국에서 가우처목사를 만난 인연이 있고 더더욱 민비의 조카인지라 그의 생명을 구한 것이 고종과 민비의 신임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당당히 선교사 신분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육 사업을 먼저 시작하여 배재학당, 경신학당, 이화학당을 세운 다음에 정동제일감리교회, 새문안교회 등 한국 최초의 개신교회를 설립하였다.

호남의 기독교 전래는 이렇하다. 언더우드가 서울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하다가 안식년으로 귀국하여 시카고의 맥코믹신학교에서 강연을 하였다. 이 자리에 신학생 테이트가 참석하여 언더우드에게 감동을 받고 한국 선교사로 갈 것을 결심하였다. 그 후 1892년 말에 7인의 개척선교단으로 한국에 도착하고 바로 전주에 와서 선교 거점지역 터를 닦았으며, 호남 지역 최초의 장로교회인 '서문교회'를 설립하므로 전북을 위시하여 호남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김천식 문학박사 (교회사/joayo7kim@hanmail.net)



▲ 아펜젤러가 세운 정동제일감리교회



▲ 언더우드가 세운 새문안 교회



▲ 현재의 서문교회 전경



900호 특집

# 우리학교 대학신문 기자들

## 편집장 김지은

저는 올해 편집장이 된 법학과 17학번 김지은입니다. 현재 저의 주 업무는 신문을 총괄 관리하는 일이고, 부수적으로 기자들의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사에 들어와 처음 취재를 나갔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신입기자였지만 운이 좋게도 영어 지면을 담당하게 돼, 많은 유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당시에 유학생을 만나는 것과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쓰는 등의 일들이 모두 처음이었

기에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해서 힘들어했던 게 생각납니다. 성격조차도 내성적이고 낮가림이 심해서 인터뷰를 하며 대화를 주도하는 일에도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이 어려웠지 시간이 지날수록 일도 많이 수월해졌고 내성적이었던 성격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이 일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그 덕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전주대신문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겠지만, 전주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분들이 주요 독자이겠지요. 편집장으로서의 저의 가장 큰 목표는 학우분들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학생분들의 흥미를 끌 수 있으면서도 의미 있는 기사를 생산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 경제면 유성훈 기자

법학과 16학번 유성훈입니다. 작년 9월부터 경제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제면 담당 기자로서 자본주의에 대한 고찰을 칼럼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심각한 빈부격차를 경험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중산층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끊임없이 필요성을 느껴 경제 관련 글을 쓰게 됐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있으며 가정을 책임지시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들은 본업을 하면서 배달, 식당, 택배 알바 등 하루에 여러 가

지 일을 하는 중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본주의의 불평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아서 이 칼럼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복지 자본주의를 통해 하루빨리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경제면을 담당하는 기자로서 전주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를 쉽게 풀어 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학우 여러분들이 취업, 창업을 수월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 영어면 임정훈 기자

전주대학교 영미언어문화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신문사 영어 지면을 담당하고 있는 임정훈입니다.

어느덧 제가 신문사에 들어와서 기사를 작성한 지 1년이 되어가네요. 신문사에 들어가기 전 학교 신문을 보며 '나도 저런 글을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어제 같은데 지금 그 글을 제가 쓰고 있네요. 처음 인터뷰하러 갔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겠고 떨리기도 해 전날 잠을 설쳤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인터뷰 당일 방송국 형께서 같이 가주신 덕분에 큰 긴장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네요. 그때 이후로 시간이 지나 지금은 서로 장난도 치는 형과 동생 사이가 되었습니다. 낮을 가려서 사람을 만날 때 조금 떨렸는데 취재, 촬영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며 극복할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활동하며 혼났던 일도 칭찬을 받았던 일도 지금은 모두 추억이구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다면 저는 저의 지면에서 전주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축제나 행사 등의 이슈들을 다뤄보고 싶고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진다면 다양한 한국 사회 이슈들을 다뤄보고 싶네요. 그리고 학교의 유용한 정보들을 직접 조사해서 유학생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 사회면 배솔민 기자

법학과에 19학번으로 재학 중인 배솔민입니다. 저는 전주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3월에 신문사로 바로 들어왔는데요. 그렇게 수습기자로 6개월간 여러 가지를 배우다가 2019년 2학기에 사회면 담당 정기자로서 사회면에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사회면은 국제사회, 국내사회, 대학사회를 통틀어 사회적인 분야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지면이며 다른 지면에 비해 시의성의 중요함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면에 썼던 기사 중 대학사회에 초점을 맞춰서 쓴 기사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해당 기사는 그해의 총학생회가 내세웠던 공

약들의 이행률을 점검하는 기사였는데요. 당시 관련자를 만나 이야기도 들어봐야 했고 교내 전체를 돌아다니며 여러 부분을 확인해야 했던 기사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문에 기억에 남는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사회면은 대학 구성원, 특히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기사를 목표로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대학신문이라는 이름에 맞게, 대학신문의 독자가 대학 구성원들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하며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대학 구성원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과 도움이 될 만한 기사들을 전하는 사회면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면 정령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면을 담당하고 있는 정령 기자입니다. 문화면은 운동이나 홈 카페 등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기도 하고 대학생들의 예술적, 지적 교양을 위한 책과 영화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문화라는 카테고리가 넓고 다양해 무궁무진한 주제로 글을 쓸 수 있어서 매 호 즐거운 고민을 합니다.

신문사에 들어와 신입 기자를 거쳐 정기자로 활동하면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일은 처음 신문사를 들어 오기 위해 면접을 봤던 일과 신입생들에게 보낼 신문 우편 작업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대학에 들어와 처음 본 면접이었고 많이 떨렸지만, 선생님과 편집장님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끌어주

셨기 때문에 재미있게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2번의 신문 우편 작업을 마쳤지만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신문사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작업하기 때문에, 힘든 만큼 재미도 있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2번의 우편 작업이 남았는데 무척.. 기대됩니다.

전주대신문을 구독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많은 분이 신문을 보면서 흥미를 느낄만한 소재로 재미있게 꾸려나가고 싶습니다.

전주대 교육방송국과의 협업으로 활자와 사진으로만 보여드려 아쉬웠던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자세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문화면 이수용 기자

신문방송국에서 문화면을 맡고 있는 패션산업학과 19학번 이수용이라고 합니다. 문화면은 무거운 주제보다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잡지처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문사에서 정기자가 된 후 첫 회의가 기억에 남습니다. 정기자가 되면서 내 언행이 학교와 신문방송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큰 부담이었습니다. 지금은 제 글을 신문에 실는다는 게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집콕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활동적인 문화면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문화지면은 퀴즈가 포함되어 있는데, 다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이 많을수록 뿌듯해집니다. 신문방송국의 인원들이 항상 밤낮으로 주제를 고민하고 표현 하나하나 신경 쓰며 글을 쓰고 있는 만큼, 전주대신문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 기획면 진서하 기자

저는 신문에 기획면을 담당하고 있는 진서하 기자라고 합니다. 기획면은 기자가 기획해서 직접 취재하는 면입니다. 최근엔 인터뷰 위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학교와 관련한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 학교가 흘러가는 방향도 알 수가 있죠.

처음 들어와서 신입기자로 활동할 때가 기억에 남아요. 그때 정기자 선배님들을 따라서 이곳저곳 취재를 다니는 게 정말 즐거웠거든요. 마치 학교에 꼭 필요한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활동할 때의 저는 활기가 돌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비대면 수업이 확정되면서, 정규학기가 시작되었다면 겪을 수 있었을 활동들을 신입기자분들이 경험하지 못해 한편으로

는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직접 현장에 뛰어 들고 여러 기자들이 섞여 함께 취재하는 경험은 나중에 지면을 담당할 때 정말 도움이 되니까요.

기획면은 기자가 직접 기획해서 이끌어 가는 만큼 앞으로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신입기자분들이 많이 유입되면 좋겠습니다. 한 명의 생각보다 여러 명의 생각이 모일 때 몇 배는 다양성 있는 생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읽어 도움이 되는 지면이 되어가고 싶습니다. 학교 신문이 학생에게 읽히는 것만큼 기쁜 것은 없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람들면 한강훈 기자

12면에 글을 쓰고 있는 한강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교수님들과 각 부서 직원분들의 소개나 정보를 전하며 학생분들이 접할 기회가 적은 이야기를 알리고자 노력 중입니다.

학교가 운영되기 위해선 정말 많은 분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저 또한 기자로 활동하고 나서야 전에는 몰랐던 여러 부서와 그곳에서 힘써주시는 직원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4월 등교가 예정되어 있던 시기에 중국인 유학생을 비롯한 각국의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때 유학생들의 입국부터 검진과 격리까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도운 국제교류원 직원분들의 노력 덕분에 저희 대학에서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정보통신원은 서버 증설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시스템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였고,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강의 영상 제작을 위한 교육과 장비 지원으로 교수님들을 도왔습니다.

등교를 하지 않아 걱정하시는 학우 여러분들이 믿고 기다려 주시길 바라는 마음과 안 보이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을 알아주셨으면 해 897호와 898호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사로 전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의 사람들면은 이전처럼 학생들이 잘 모르는 직원분들의 활동과 각 학과 교수님들의 활동을 계속 알리며, 그에 더해 대학 내 대화에서 수상한 학생들도 기사로 전하고 싶습니다.



교수칼럼

#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한 연대의 가치



김연수 교수  
(사회과학대학 상담심리학과)

올 봄 전주대 캠퍼스는 매우 낯설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학기 중 풍경과는 거리가 멀었다. 꽃샘추위가 남아있던 개강 초에는 그래도 기대가 있었다. 머지않아 날씨가 따뜻해지면 봄꽃도 피고 코로나19 유행도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면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곤 했다. 그런 기대가 무색하게 학생들이 없는

캠퍼스에서 벚꽃은 저 혼자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떨어져 버렸다. 어느새 한 학기의 절반 이상이 훌쩍 지나버렸다. 코로나19로 우리 일상은 확연히 달라졌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사람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감염병이 실제 얼마나 심각한가와 상관없이 정확한 원인, 감염경로, 감염 후 증상이나 후유증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적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어느 정도 진행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지 알아 가고 있다. 초기에 나타났던 극도의 불안감은 다소 줄어드는 양상이다. 그러나 막연한 불안감과는 또 다른 심리적 문제가 생겨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잡힐 듯 잡히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시점에서 몇 번이고 다시 확산된다. 그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 대해 분노하고 비난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은근한 따돌림이 수반되기도 한다. 물론 확진자 중에는 공동체에 대한 배려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했던 이들도 분명히 있다.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 오면서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누적된 대다수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때의 분노는 방향이 정확해야 한다. 열심히 생업에 임하는 과정에서 감염병에 걸린 이들에게까지 낙인을 찍고 따돌리는 것은 감염병 재난의 또 다른 피해를 낳고 공동체의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암울한 예측은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올 봄 코로나19 감염 상황에서는 다양한 인간 군상이 드러났다. 그중에는 조금씩 모았던 마스크를 기부하는 노인도 있었고 감염 차단을 위해 인적 드문 길만을 골라 짚지 않은 거리를 걸어서 검사하러 간 자가격리자도 있었다.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없이는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서로 돕고 연대하는 것, 이것이 다시 올지 모를 감염병 재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닐까. 캠퍼스가 일상의 온기로 다시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생각해 본다.



기자칼럼

#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전주대신문



김지은 기자

1965년 5월 15일 창간된 전주대신문이 벌써 900호를 맞이했다. 나는 887호부터 전주대신문과 함께 했다. 지금까지 5회는 신입기자로서, 5회는 기획면 지면담당 기자로서, 4회는 편집장으로서 많은 기사를 썼고, 그에 맞는 다양한 경험도 쌓았다.

정말 애증(愛憎)의 신문이다. 다음 호에 실을 기사에 대해 끊임없이 회의하고 밤새워 기사를 작성하고 계속해서 퇴고하고... 심지어 편집장이 된 이후론 신문이 발간되기 일주일 전부터는 해가 뜨기 전까진 아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기자들

은 왜 이렇게 마음을 지키지 않는 건지... 그렇지만 신문이 발간되고 나면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만큼 보람과 기쁨이 느껴진다. 사실 아직까진 애(愛)와 증(憎) 중 애(愛)가 더 크다. 하지만 이렇게 보람차다 해도 학보에 무관심한 학생들을 보게 되면 속이 너무 상한다.

내가 신입기자였을 때 '미디어 환경변화와 대학언론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칼럼을 작성했었다. 그때 대학언론에 대해 고찰하며 "대학언론은 한때 대학사회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현시대는 신문 등의 전통적 미디어가 갈수록 위축되어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캠퍼스 내 학생들의 관심은 예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어 매주 힘겹게 발행하는 학보를 아예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썼던 게 생각난다.

정말로 과거 학생운동이 활발하던 시절 대학신문은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 시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학보였고, 이러한 이유로 구독률이 아주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독자들을 잃기 시작했다.

편집장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민했다. 구독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과연 종이신문이 없어질까? 하지만 역시 그건 아니

라고 결론을 내렸다. 신문은 신문 나름대로의 상징을 가지고 있다. 대학신문 또한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 종이신문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대학신문은 그만이 갖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 대학신문은 여전히 학내 구성원들의 소통 수단이다.

대학신문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에 안주하지 말고 신문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열독률을 올릴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플랫폼의 변화에 발맞춰 우리 전주대신문 또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즉석에서 행하는 정보전달 방식이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놨다. 이러한 시류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우리 신문을 홍보하고 신문에 대한 접근성을 키워야 한다. 현재도 인터넷 신문을 발간하고 있지만, 이에 그치지 말고 '내 손안의 신문'을 모토로 더 많은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지난 55년 간 전주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해온 우리 전주대신문은 앞으로도 학교 공동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 사설

# 전주대학교의 역사와 함께하는 학생의 신문

## 제 900호 발간의 의미와 각오

1965년 5월에 창간돼 지난 55년간 우리대학의 역사를 변함없이 기록해 온 전주대신문이 이번호로 제900호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보는 개교 56년 동안의 전주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어렵고 힘든 역사 모두를 정도(正道)를 지키면서 기록해 왔으며, 대학언론의 가치를 지키면서 정론(正論)을 펼쳐왔다고 자부한다. 더불어 본보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전주대학교의 역사와 함께 할 것임을 다짐한다.

전주대신문은 우리 대학의 역사기록이다. 전주대학교의 개교와 거의 함께 창간된 본보는 창간호에서부터 제 900호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학에서 일어난 중요한 거의 모든 사항을 섬세하게 기록하였다. 지난 2014년 발간된 '전주대학교 50년사'는 그 편찬에 본보의 자료를 중요하게 인용했다. 만약 본보의 기록이 없었다면 지난 50년간의 우리 대학의 역사 중 많은 부분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전주대학교 역사의 기록이 바로 본보의 중요한 역할이며 가치이다.

전주대신문은 학생의 대학신문이다. 본보는 학생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학생기자들이 함께 모여 깊이 토론하고 편집해 제작하는 대학신문이다. 전주대신문은 학생의 눈으로 학생의 권익을 위하여 대학과 사회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대학언론이다. 따라서 본보는 전주대학교 학우들이 주인인 신문이며 대학언론이다.

급변하는 세상과 그 변화의 조류에 직면해 대응해야만 하는 대학생들은 혼란스럽고 조심스럽다. 어떠한 방향으로 언제 얼마만큼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 우리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그 선택의 속도와 무게에 신중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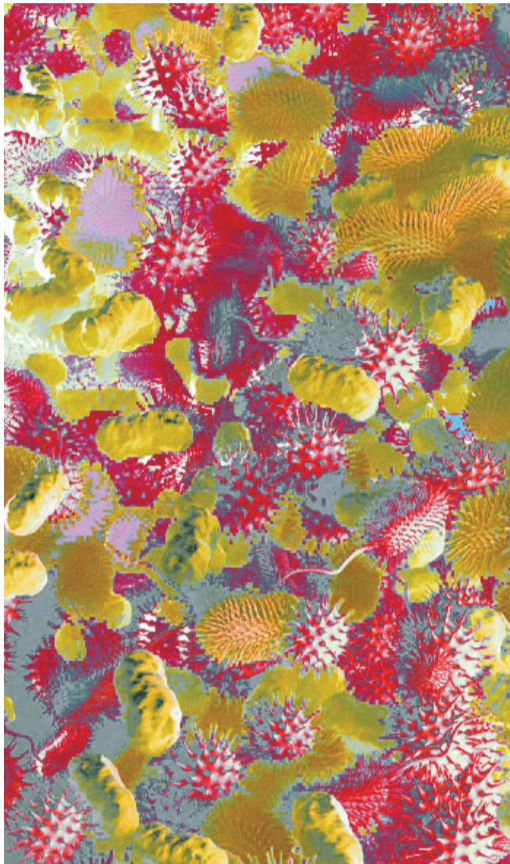
이러한 시대의 변곡점에 전주대신문은 대학언론의 역할인 시대의 변화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 변화의 실체를 정확히 분석하여 그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제시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려고 한다. 본보는 이러한 역할을 통해 전주대학교 구성원들을 위한 정도(正道)와 정론(正論)이라는 대학언론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것을 다짐한다.

전주대신문 1965년 5월 15일 창간

우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장로 303  
신문방송국 063) 220-2441 / news@jj.ac.kr  
발행인 이호인 주간 김병기 편집장 김지은  
편집인쇄 (주)제일출판  
인터넷신문 news.jj.ac.kr

## Human Microbiome

By Kim Jieun & Jung Ryeong, Reporters



Did you know that inside of our bodies there are ten times more microorganisms than human cells? More than 100 trillion microbes exist in the organs of the whole human body, including skin, mucous membranes, mouth, teeth, respiratory organs, and genital organs. They are interacting with our bodies and performing important functions.

Intestinal microorganisms are responsible for 80% of the human immune system. They help us digest and absorb nutrients, which we are unable to process directly in our body, and prevent various diseases while inhibiting the growth and activity of harmful bacteria. In other words, they extract nutrients and/or energy from food which we eat, and drives out or suppresses pathogens.

The collection of all microbial groups that naturally exist in the human body is called human microbiome. Microbiome refers to the genetic in-

formation of numerous microbes that coexist in the human body. Also, it is dynamically changed by various causes such as race, gender, age, diet, family, and lifestyle. Unlike the diversity of microbial species that make up each individual's microbial clusters, the major functional genes that make up microbiomes are shared in large part in spite of differences in object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Through microbiome dielectric analysis, we analyze the cause of a disease so that we may solve a chronic or intractable disease and even metabolic syndrome. It can also contribute to human health and disease treatment in a wide range of areas, including obesity, diabetes, high blood pressure, depression, and autism.

The microbiome industry, which does research on various microorganisms in the human body, is expected to be a new growth engine that will lead the bioengineering

sector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oteworthy that it can analyze different human microbiome information from person to person and use it as personalized medicine. This new technology can be applied to various fields such as food, agriculture, livestock, fisheries, and the environment, as well as academic research. It is expected to be an industry that Korea, which has excellent fermented foods, can do best. To date, research and development on human microbiome are in the early stage, so it requires long-term planning and investment by the government and businesses.

With the active development of human microbiome, we could look forward to some positive effects. We may soon have a personalized medical system by developing alternative treatments for diseases that previously could neither be determined nor be treated properly.

## Let's Make It Clean and Save Life

By Yim Jeonghun, Reporter

Do you know what day June 5th is? It is World Environment Day (WED). It was discussed during the Stockholm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 in Sweden in June 1972, and was establish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the same year.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 set up following the resolution of the Stockholm Conference, has selected and announced the theme of the year on the occasion of WED every year since 1987. Each continent takes turns choosing a country and holding an event. Korea also designated June 5th as Environmental Day in 1996 and held the UNEP-sponsored World Environment Day in Seoul in 1997.

Presently, environmental problems are so serious that there are days related to various environmental issues. Among them, the air pollution problem is the most serious. UN Secretary-General Antonio Guterres said in 2019 that air pollution kills 7 million people every year and it is connected to global warming.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lso warned in 2018 that nine out of 10 people in the world

breathe highly polluted air. Based on the statistics of the year 2018, for example, the quantity of plastic products used by one citizen in Korea is the world's largest and the amount of plastic used for packaging is said to be the world's second largest. Although it is gradually decreasing, the usage of plastic is attributed to one of the main sources of pollution problems which are even more serious. Therefore, we should try to reduce environmental pollution as much as possible. What are some ways to can reduce environmental pollution in our everyday life?

First, instead of using disposable products such as plastic bags and plastic products, let's use re-usable products such as eco bags and tumblers. Second, let's use public transportation like bus more often than we usually do. Third, let's recycle responsibly. Before we empty out our garbage cans, let's correctly separate the re-usable: paper, glass, plastics, batteries, and so on. We have to be careful because a single product is made of several different materials. Food containers should

be emptied first and thrown away. Every little bit that each of us does can help make the earth cleaner. How about starting by doing whatever we can do today?

I met a group of campus cleaning staff, and one of them told me, "I often see trash and food and recyclables products thrown away in the same garbage can. They aren't separated properly.

There are signs, in bold letters, just above the garbage cans, though. If they are mixed, it is difficult for me to separate them. You may think you are an exception, but others will follow your way." It depends on you whether you make it clean or make it polluted. Imagine you have a set of balance scales, and put environment and convenience on the two dishes of it. Why don't you make it balanced?



## 人类迎来旅行宇宙时代



5月31日(北京时间)凌晨3:22分,在美国肯尼迪航天中心,由马斯克率领2002年成立的SpaceX公司成功发射了载人宇宙飞船-龙飞船(Crew Dragon)。并经过大约19个小时的飞行后,载人龙飞船和国际空间站成功对接,与国际空间站的三位宇航员实现了历史性的相聚。



龙飞船是人类制造的第九个载人飞船,也是第一个私营公司制作的载人飞船。龙飞船长约8米,直径4米,一般乘坐四人,最多可乘坐七人。之前的载人宇宙飞船无一例外都是国家力量(苏联、美国、中国)推动下的产物。而此次人类首次坐上商业公司制造的宇宙飞船前往太空站。SpaceX正式成为首个掌握载人飞船和发射能力的私营企业。它标志着载人航天运输走向商业化,也就是个人或单位可以购买相关企业提供的太空旅行服务。人类迎来了旅行宇宙的新时代。正如天仪研究院CEO杨峰告诉投资界,“SpaceX此次发射成功最大的意义是,原来航天都是需要举国之力的,特别是像载人航天这种难度最大、风险最高、责任最大的这种工程,但是现在可以由一家商业公司来做了。这是一个巨大的突破。这是全球商业载人航天新时代第一飞,也是全球私营太空公司载人航天第一飞。接下来,地球人的太空旅行也许不远了。”而狂人马斯克欲将人类移民到火星的梦想也正在渐渐实现。人类离开不安的地球到另一个星球的时代真的可以期待了吗?(实习记者)

## 2020年第一学期TOPIK成绩奖学金申请

为了鼓励本科留学生提高韩国语能力,全州大学国际交流院将为取得TOPIK成绩的本科留学生发放奖学金。现将申请对象、申请期间、申请地点、提交材料、申请条件、奖学金支付标准介绍如下。

申请对象为在校本科生。2020年第一学期入学的新生和插班生(编入生),不包括在本次申请对象范围,但下学期可以申请。休学者和延期毕业者也不在申请范围。

申请期间为2020年6月1日至2020年6月5日17:00。申请地点为留学生服务中心(Star center A209号,图书馆旁边,Food court内)。申请材料为1.申请书(留学生服务中心提供),2.个人信息同意书(留学生服务中心提供),3.学生本人的存折复印件(本人准备),4.TOPIK成绩证明书(本人准备),5.在学证明书(本人准备,在学生

服务中心颁发),6.成绩证明书(本人准备,学生服务中心颁发)。

申请条件有四条。第一,2019年第二学期修满12学分以上者。第二,2019年第二学期平均评分为2.5以上者。第三,升入本科之后取得的TOPIK成绩此予以认可。第四,已经领取奖学金的同学,级数提升时将发放差额。

奖学金支付标准:四级15万韩元(16年以前入学者),或30万韩元(16年以后入学者);五级:30万韩元(16年以前入学者),六级:50万韩元(16年以前入学者)。16年以后入学者五级和六级的奖学金都是50万韩元。

咨询电话:063-220-4750 留学生服务中心

## 2020年上半年JJ-TOPIK考试

由于冠状病毒的影响韩国国内外的韩国语能力考试都被迫取消,全州大学为了帮助准备升学和毕业的学生,将自主施行升学和毕业必须的韩国语能力考试。

应试对象分为三类学生。第一,全州大学国际交流院韩国语教育中心的学生,第二,希望2020年第二学期升入全州大学的新生及插班生(国内外报名者)。第三,全州大学2019年本科毕业(8月19日),未取得TOPIK四级以上者,或未取得TOPIK的结业者(包括海外滞留者)。

报名期间为2020年5月25日至2020年6月10日17:00。报名地点为留学生服务中心,报名费为3万韩元。报名时请携带3X4G照片一张。

考试地点是全州大学,考试时间为6月21日(星期天)13

:00。考试时要准备,1.考试接受证、2.身份证(外国人登录证、护照等)、3.书写工具(圆珠笔、修正带等)。

考试注意事项为,第一,应试者一定要在12:20之前进入考场,迟到者不准入场。成绩发表时间为2020年6月30日(星期二)15:00以后。成绩表分发地点和时间全州大学国际交流院办公室,2020年7月1日(星期三)15:00以后。

本次考试是为全州大学新生和插班生,以及毕业生自主进行的韩国语能力考试(TOPIK),具有公认认证考试效力。

咨询电话:全州大学国际交流院 063-220-3198

# Hướng dẫn "Đăng ký làm thêm" cho du học sinh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 A. ĐỐI TƯỢNG

- Học sinh học tiếng – visa D-4
  - Nhập cảnh từ 6 tháng (180 ngày) trở lên + điểm chuyên cần bình quân 90% trở lên
- Sinh viên Đại học & Cao học – visa D-2
  - Thành tích học tập kitước đạt loại C (bình quân 2.0) trở lên (sinh viên năm 1 kì 1 thì căn cứ vào thành tích học tiếng)
  - ※ Sinh viên hoàn tất nghiệp vụ chưa có TOPIK, sinh viên trong kì viết luận văn, sinh viên tìm việc (visa D-10) không thể đăng kí làm thêm.

### B. Thời gian cho phép làm thêm-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 Trường TOP 1%

Hệ / Năm học	TOPIK	Thời gian cho phép	
		Trong tuần (Thứ 2~6)	Cuối tuần, ngày lễ, kỳ nghỉ
Hệ học tiếng (Sau 6 tháng kể từ khi nhập cảnh)	Không có TOPIK	Tối đa 10 tiếng	
	> cấp 2	Tối đa 25 tiếng	
Hệ Đại học	Năm 1~2	> cấp 2	10 tiếng
	Năm 3~4	> cấp 3	25 tiếng (Không giới hạn)
		> cấp 3	10 tiếng
		> cấp 4	25 tiếng (Không giới hạn)
Cao học (Thạc sĩ, Tiến sĩ)	Đang theo học	> cấp 3	15 tiếng
	Tốt nghiệp sinh	> cấp 4	35 tiếng (Không giới hạn)
		> cấp 3	15 tiếng
		> cấp 4	30 tiếng

※ Các công việc không được làm thêm: Quán rượu, Cờ bạc giải trí, Ngành xây dựng, Ngành sản xuất -> Cường chế xuất cảnh nếu bị phát hiện. Cấm những hoạt động vượt khỏi bốn phận của học sinh như làm thêm. Trường hợp sinh viên có TOPIK 4 có thể được phép đi làm các ngành sản xuất

### C. Thủ tục cấp phép làm thêm

▶ Du học sinh → Tiếp nhận đăng ký → Đăng ký tại Cục xuất nhập cảnh → Cần 2~5 ngày để ra thông báo được hoặc không → Viện Giao lưu Quốc tế thông báo → Đi làm thêm

### D. Xử lý các trường hợp làm thêm vi phạm quy định Bộ tư pháp

Thành phần	Nhà tuyển dụng (Chủ)	Du học sinh (Nhân viên)
Quy tắc	Thời gian tuyển dụng	Vi phạm lần 1: Cấm đi làm thêm 1 năm và nộp tiền phạt Vi phạm lần 2: Hủy bỏ tư cách du học và cường chế xuất cảnh
	Dưới 6 tháng: 200~500만원	
	Dưới 1 năm: 400~700만원	
	Dưới 2 n: 600~1,000만원	

### E. Hồ sơ cần để xin giấy phép làm thêm

■ Người tuyển dụng (Chủ): Hợp đồng lao động theo giờ, giấy xác nhận việc làm theo giờ, bản sao chứng nhận đăng ký kinh doanh, bản sao chứng minh thư doanh nghiệp, v.v...

■ Du học học sinh: Hộ chiếu, giấy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giấy chứng nhận thành tích và chuyên cần, giấy chứng nhận TOPIK, v.v.

Scan mã QR bên cạnh để xem thêm biểu mẫu



### F. Thông tin chủ yếu liên quan tới làm thêm

시간제 취업허인서  
표준근로계약서▶

#### ◆ Có thể làm thêm những gì?

- ▶ Trong giới hạn cho phép các học động làm việc theo giờ bán thời gian, lao động đơn giản của tiêu chuẩn làm thêm mà du học sinh có thể tham gia ngoại trừ các lĩnh vực chuyên môn

#### [Nhưng ngành du học sinh được phép làm thêm]

- ▶ Các nghề nghiệp được công nhận có quan hệ mật thiết với các môn chuyên ngành
- ▶ Thông biên dịch, thủ thư thư viện, hỗ trợ nhà hàng, hỗ trợ văn phòng thông thường.
- ▶ Lĩnh vực lao động đơn giản (Không phải lĩnh vực bị giới hạn tìm việc làm)
- ▶ Lĩnh vực sản xuất (Người đạt TOPIK 4, cho phép tạm thời)
- ▶ Là hỗ trợ viên như bán hàng trong các hội trại sử dụng ngoại ngữ
- ※ Thực tập không lương lấy học phần tốt nghiệp, Nghiên cứu trong trường học, trợ giảng tại trường đang theo học, hỗ trợ quản lý du học sinh theo giờ
- ※ Trong phạm vi không xâm hại đến bốn phận học sinh và các ngành nghề được cho phép làm thêm.

#### ◆ Ai có thể được đi làm thêm?

- ▶ Những người đã đỗ TOPIK và chuyển tâm học tập được giáo viên phụ trách Viện Giao lưu Quốc tế thẩm tra và nhận được giấy phép đi làm từ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thì có thể đi làm thêm.
- ▶ Trường hợp làm thêm bất hợp pháp bị phát hiện có sẽ bị cấm làm thêm trong vòng 1 năm

#### ◆ Muốn thay đổi nơi làm thêm?

- ▶ Trong vòng 14 ngày kể từ ngày đổi nơi làm việc phải qua văn phòng Giao lưu Quốc tế để báo cáo

#### ◆ Không được làm những công việc như

- ▶ Các công việc liên quan tới Xây dựng, Quán rượu, Khu giải trí không lành mạnh
- ▶ Làm việc theo chế độ nhân viên chứ không phải theo chế độ bán thời gian (làm thêm)
- ▶ Gia sư (bao gồm cả ngoại ngữ)
- ▶ Các hoạt động không phù hợp với bốn phận của học sinh và các ngành nghề bị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hạn chế

#### ◆ Nếu vi phạm thì?

- ▶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chưa được phép đi làm thêm
  - Xử phạt theo điều 18 của luật đối với hành vi làm việc trái phép (tuyển dụng trái phép) đối với đương sự và người tuyển dụng (Thông qua thẩm tra quyết định trực xuất hoặc cho phép lưu trú thêm.v.v)
  - Bị phát hiện lần 1 nộp tiền phạt: m Trong vòng 1 năm bắt đầu từ ngày nộp phạt không được phép đi làm thêm và sẽ không đủ khả năng để đổi thị thực (visa) xin việc (D-10)
  - ※ Các hoạt động vượt khỏi bốn phận của học sinh hoặc ngành nghề xây dựng:
    - Bị phát hiện lần đầu cũng sẽ bị trục xuất ngay lập tức
    - Bị phát hiện lần 2 sẽ bị trục xuất ngay lập tức

☎ Liên lạc: Viện Giao lưu Quốc tế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063-220-3292

# | 전주대 신문방송국 역대 주간교수 및 신문사 편집장 |

## 1대

1호~13호 1965.5.15.~1968.2.5.  
 14호~16호 1968.5.16.~1968.11.8.  
 17호 1969.2.7.  
 주간:이길배, 편집:이목윤  
 주간:이길배  
 주간:이길배, 편집:김석순

## 2대

42호 1973.6.20.  
 45호~56호 1974.1.10.~1975.2.22.  
 주간:김호철, 편집국장:조혜용  
 주간:김호철, 편집국장:김종춘

## 3대

89호~91호 1978.10.10.~1979.1.1.  
 주간:유병기, 편집장:이명길

## 4대

96호~102호 1979.6.30.~1980.2.25.  
 103호~115호 1980.4.15.~1981.2.20.  
 주간:이기반, 편집인:유병기, 편집장:김복순  
 주간:이기반, 편집인:장교철

## 5대

116호~117호 1981.3.20.  
 118호~121호 1981.4.15.~1981.6.15.  
 주간:김일환, 편집장:장교철  
 주간:김일환, 편집장:고석렬

## 6대

122호~131호 1981.8.31.~1982.2.20.  
 134호~155호 1982.4.15.~1983.2.15.  
 주간:이호선, 편집장:고석렬  
 주간:이호선, 편집국장:진규철

## 7대

156호~176호 1983.3.15.~1984.2.29.  
 177호~185호 1984.3.15.~1984.8.30.  
 186호~190호 1984.9.15.~1984.10.30.  
 191호~195호 1984.11.15.~1985.1.15.  
 주간:이기반, 편집국장:서건우  
 편집인:유병기, 주간:이기반, 편집국장:양세창  
 주간:이기반, 편집국장:양세창  
 편집인:이성택, 주간:이기반, 편집장:양세창

## 8대

196호 1985.2.25.  
 197호 1985.3.20.  
 편집인:오종일, 주간:강중탁, 편집장:양세창  
 편집인:오종일, 주간:강중탁, 편집장:백무현

## 9대

198호~221호 1985.3.30.~1986.1.10.  
 222호~224호 1986.2.25.~1986.3.10.  
 편집인·주간:강중탁, 편집장:백무현  
 편집인·주간:강중탁, 편집장:김진경

## 10대

225호 1986.3.20.  
 226호~247호 1986.3.31.~1987.2.25.  
 편집인:김충식, 주간:강중탁, 편집장:김진경  
 편집인:김충식, 주간:석희선, 편집장:김진경

## 11대

248호~259호 1987.3.10.~1987.6.10.  
 260호~268호 1987.7.15.~1987.10.17.  
 269호~274호 1987.12.10.~1988.1.11.  
 편집인:이진식, 주간:석희선, 편집장:장세환  
 편집인:이진식, 주간:주명준, 편집장:장세환  
 편집인:이진식, 주간:원한식, 편집장:장세환

## 12대

275호~276호 1988.2.23.  
 277호~289호 1988.3.3.~1988.6.2.  
 290호~291호 1988.6.30.~1988.7.29.  
 292호~305호 1988.9.1.~1989.2.23.  
 306호~333호 1989.3.6.~1990.2.19.  
 334호 1990.3.8.  
 편집인:심상욱, 주간:원한식, 편집장:장세환  
 편집인:심상욱, 주간:원한식, 편집장:이인호  
 편집인:양중갑, 주간:원한식, 편집장:이인호  
 주간:원한식, 편집장:이인호  
 주간:원한식, 편집국장:조형돈  
 주간:원한식, 편집국장:최영규

## 13대

335호~357호 1990.3.22.~1991.2.25.  
 358호~383호 1991.3.18.~1992.2.25.  
 384호~389호 1992.3.9.~1992.5.4.  
 편집인:황갑순, 주간:전일환, 편집국장:최영규  
 편집인:황갑순, 주간:전일환, 편집국장:소성빈  
 편집인:황갑순, 주간:전일환, 편집국장:양은주

## 14대

390호~408호 1992.5.11.~1993.2.23.  
 409호~433호 1993.3.15.~1994.1.1.  
 편집인:황갑순, 주간:박창수, 편집국장:양은주  
 주간:원한식, 편집국장:문병은

## 15대

434호~457호 1994.3.7.~1995.1.1.  
 458호~469호 1995.3.6.~1995.8.28.  
 470호~479호 1995.9.4.~1996.1.1.  
 480호~493호 1996.3.4.~1996.8.19.  
 494호~504호 1996.9.2.~1997.1.1.  
 505호~530호 1997.3.3.~1998.2.23.  
 531호~558호 1998.3.2.~1999.3.3.  
 주간:원한식, 편집국장:배석희  
 주간:원한식, 편집국장:김두원  
 주간:원한식, 편집국장:양정훈  
 주간:원한식, 편집국장:장대현  
 주간:원한식, 편집국장:최경주  
 주간:원한식, 편집국장:김용복  
 주간:원한식, 편집국장:박순철

## 16대

559호~569호 1999.3.9.~1999.6.1.  
 570호~573호 1999.8.24.~1999.9.14.  
 574호~589호 1999.10.5.~2000.6.13.  
 590호~592호 2000.7.21.~2000.9.26.  
 주간:현경식, 편집인:현승미  
 주간:현경식, 편집인:박선일  
 편집인:윤찬영, 편집국장:박선일  
 주간:윤찬영, 편집국장:박선일

## 17대

593호~597호 2000.10.17.~2001.1.1.  
 598호~605호 2001.3.6.~2001.6.12.  
 606호~609호 2001.7.31.~2001.9.25.  
 610호~617호 2001.10.9.~2002.2.22.  
 618호~626호 2002.3.5.~2002.6.29.  
 편집인:윤찬영, 편집국장:박선일  
 편집인:윤찬영, 편집국장:이영숙  
 편집인:윤찬영  
 편집인:윤찬영, 편집국장:이은교  
 편집인:윤찬영, 편집국장:김경호

## 18대

627호~638호 2002.9.3.~2003.1.1.  
 639호~644호 2003.3.4.~2003.5.20.  
 편집인:은종성, 편집국장:김경호  
 편집인:은종성, 편집국장:방효진

## 19대

645호~657호 2003.6.3.~2004.2.24.  
 658호~667호 2006.3.9.~2004.9.21.  
 668호~673호 2004.10.12.~2005.1.10.  
 편집인:최종열, 편집국장:방효진  
 주간:최종열, 편집국장:한성수  
 주간:최종열

## 20대

674호 2005.2.23.  
 675호~679호 2005.3.3.~2005.5.10.  
 주간:서은혜  
 주간:서은혜, 편집국장:강승범

## 21대

680호~691호 2005.5.24.~2006.2.21.  
 692호~700호 2006.3.8.~2006.9.5.  
 701호~706호 2006.9.19.~2006.12.6.  
 707호 2007.2.23.  
 주간:김승곤, 편집국장:강승범  
 주간:김승곤, 편집국장:김선영  
 주간:김승곤, 편집국장:안샘지니  
 주간:장선철, 편집국장:안샘지니

## 22대

708호~715호 2007.3.8.~2007.6.21.  
 716호~723호 2007.8.30.~2008.1.11.  
 724호~739호 2008.3.6.~2009.1.1.  
 740호~754호 2009.2.20.~2009.12.10.  
 755호 2010.1.22.  
 편집인:장선철  
 편집인:장선철, 편집국장:김남원  
 편집인:장선철, 편집국장:전혜원  
 편집인:장선철, 편집국장:김현준  
 편집인:장선철, 편집국장:이현서

## 23대

756호~762호 2010.3.11.~2010.6.10.  
 763호~773호 2010.9.1.~2011.3.30.  
 774호~817호 2011.4.13.~2013.12.3.  
 편집인:양병선, 편집국장:이현서  
 편집인:양병선, 편집국장:박소연  
 편집인:양병선

## 24대

818호~837호 2014.3.5.~2015.4.29.  
 838호~846호 2015.5.20.~2015.12.7.  
 847호~869호 2016.3.7.~2017.9.13.  
 870호~874호 2017.9.27.~2017.12.11.  
 주간:김문택,  
 주간:김문택, 편집장:채지현  
 주간:김문택, 편집장:박주경  
 주간:김문택, 편집장:배종모

## 25대

875호~880호 2018.3.14.~2018.6.7.  
 881호~886호 2018.9.12.~2018.12.6.  
 주간:박기범, 편집장:배종모  
 주간:박기범, 편집장:김하선

## 26대

887호~891호 2019.3.20.~2019.6.12.  
 892호~896호 2019.9.18.~2019.12.11.  
 897호~900호 2020.4.1.~2020.6.3.  
 주간:김병기, 편집장:이혜린  
 주간:김병기, 편집장:안혜란  
 주간:김병기, 편집장:김지은



▲ 2020년 6월 전주대 신문사 기자들 모습